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함께하는 남북 협력과 통일 교육

남북 교류는 중앙 부처 차원의 부차적인 의미로서 가능하였고 규모와 기간 등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지방 자치단체는 남북 교류와 관련된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였고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의 남북 교류가 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체계가 잡히면 향후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 대비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방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남북 관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은 필요성이 더욱 커 보인다.

우리와 같은 분단을 겪었던 독일은 전형적인 연방제 국가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다. 통일 이전에도 주정부의 자치가 확고히 보장되었고 자매결연 등 지자체들이 동-서독 교류에 직접 나서기도 하였다. 동독 탈주민들의 수용에 있어서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협력해 나갔고 통일 이후 재원 부담에서도 주정부는 고통을 분담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주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하

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정치교육센터'는 연방 센터도 있지만 각 주마다 지역 센터가 있어 지방 특색에 맞는 이슈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분단 시기 정치교육센터는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전파 역할을 하였고 기본권 및 시장경제 등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도 수행하였다. 통일 이후에는 통일에 따른 통합의 가치를 설파하였고 현재는 올바른 정치 체제와 선거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수년 전 지방 정치교육센터에 가 볼 일이 있었는데 실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놀란 적이 있다. 또한 가지 특색 있는 통일 교육의 함의는 서독에서 추진된 '보이텔스바흐 합'의 이다. 냉전이 한창 중일 1970년대 중반 서독의 보수와 진보 진영은 치열한 논쟁 끝에 이념과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치 교육 지침을 마련하였다. 한편 합의한 원칙은 대체로 지키는 독일의 특성에 따라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강제할 수 없으며 토론과 논쟁을 통해 독립적인 관점과 사고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체적인 인식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가치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만 한다. 어느 한 편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뤄나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 특히 통일이라는 민족의 명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가 더욱 긴요하다고 하겠다.

지방 자치단체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남북 교류에 따른 평화적 효과와 지역경제에의 이득, 나아가 통일 과정에의 기여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참여형 방식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정부도 그들만의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을 시너지 효과를 배가해야 할 것이다.

지방에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민주평통, 민간단체, 지역 통일관 등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들이 각기 따로 수행하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엮는다면 더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낼 수 있을 것이다. 내년 통일교육주간은 통일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사회적 합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혁신도시 시즌2 상생 정진 어디로 갔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정진을 상징한다. 타 광역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몰두할 때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데 손을 잡는 상생을 선택했다. 한전이라는 최대 공기업을 나누로 유치하게 된 것은 이런 상생 정진을 정부가 높이 산 결과다.

하지만 요즘 광주시와 전남도의 혁신도시 관련 정책을 보면 상생 정진이 실종된 듯하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 2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도 불협화음이 계속된다. 나주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걷는 지방세 징수분의 얼마를 언제부터 기금으로 내놓을지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전남도는 손을 놓고 있다.

급기야 '혁신도시 시즌2'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따로 유치전에 나섰다. 광주시가 35개 기관 유치를 정부에 신청하자 전남도는 22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상생 정진을 팽개치고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나서다 보니 광주와 전남이 유치를 희망한 기관이 18곳이나 겹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정부의 시각도 싸늘하다. 혁신도시에 조성하기로 한 복합혁신센터와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산 문제로 이견을 보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관련 회의에 광주시를 초청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과도한 유치 경쟁을 벌일 경우 정부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공공기관을 반드시 빛가람혁신도시로 모을 필요는 없다. 정부가 시즌2 이전 대상지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지역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유치 희망 기관이 18곳이나 겹치는 것은 문제다. 혁신도시 상생 정진 회복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장들이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수습 최선 다해야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우리 국민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람선 '허블레야니' (헝가리어로 '인어')호가 29일(현지 시간) 오후 9시 15분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자구에서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실종자 19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실종자는 6살 어린이를 비롯해 주로 40~50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대부분인데 약천후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악조건 때문에 인명 피해를 더 늘 것으로 우려돼 세월호 참사를 겪은 국민들로서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실종자 중에는 전남 출신도 포함돼 있다. 여수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실종되고 황 모 씨만 구조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하

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소방청 구조대 2개 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 대응 팀으로 급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외에서 사고가 난만큼 국내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력·장비와 외교력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사고 현장 구조 작업은 물론 헝가리 정부와 함께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해외 분쟁 지역, 위험 지역 등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과 국가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해외 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에서도 유람선 관광객들이 크게 늘는 등 해상 사고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칼럼

오월을 보내고, 다시 오월을 기다리며



황성호
영남 신복성당 주임 신부

월, 여지없이 그곳은 전투와 같은 광경이 벌어졌다. 그런데 전투 경찰이 후퇴하다 넘어진 한 대학생을 군화발로 짓밟는 것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우리의 형이었고, 우리의 누이였으며, 우리의 가족이었다. 왜 그렇게 짓밟아야만 했을까? 위협이 느껴지는 제복을 입고 군화를 신은 경찰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보고서 나는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다만 나의 오른 손에 깨진 보드블럭 돌을 들고, 전투 경찰들을 향해 힘차게 던질 뿐이었다.

다시 80년 5월을 기억해본다. 한 시민군이 나와 골목 친구들에게 박카스 한 병을 주었다. 내 기억으로 우리는 박카스 병뚜껑으로 조금씩 따라 나눠 마셨다. 당시 꽤 변화했던 서방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시민군들에게 나누어 줄 즉석밥 등의 먹거리를 만들었고, 빨간 플라스틱 한 바가지의 물을 단숨에 삼켜 버렸던 목마른 시민군 형도 기억난다. 그 형을 바라보시던 한 여학생이 "야 이놈아! 체하다. 천천히 먹으라 영" 하더니, 한 바가지들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이내 배를 채운 시민군 형들이 하나 둘씩 트럭에 탔

고, 시장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했던 게 기억난다.

민주화를 외치다 열사가 된 이들은 광주 망월동 묘역으로 향하였고, 그 행렬은 항상 서방 시장을 지났다. 어느 해 5월, 나는 가게에서 아버지를 댄던 중이었다. 별안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전투 경찰들이 시장 앞을 지나고 열사와 함께 한 행렬을 흠뻑 적었다. 가게 앞까지 최루탄이 터지고 난리였다. 광주 지리를 몰랐던 타 지역 대학생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 저기서 전투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고 잡혔다. 그런데 한 대학생이 갑자기 우리 가게에 들어왔고, 전투 경찰도 뒤따라 왔다. 그때 아버지의 말이 정확하게 기억난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아버지와 TV를 보다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 우리 광주의 희망이라 생각했던 고(故)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이다. 이제는 더 이상 5월이 되면 가뭄이 치약을 넣고 손에 쥐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돌을 나니에 쥐거나 던지지 않아도 되며, 또한 우리의 형, 누나, 가족들이 도망치거나 두들겨 맞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의 5월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 거만한 전투원 썩는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무언가를 묻고 싶어 그의 팔을 잡으니 "이거 왜 이래"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다. 아마 그는 끝내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안에 있는 멍우리 같은 슬픔과 고통이 깨끗이 씻기는 날은 아직도 멀었다 말인가?

이제 내가 아는 경상도 사제들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은 광주의 희생 때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39주년의 5월을 보내고 있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온 몸으로 지켜냈던 광주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나는 내년 5월에 내 조카들에게 박카스를 주고 싶다.

나는 내년 5월에 빨간 플라스틱 한 바가지 물을 단숨에 삼켜버리고 싶다. 그리고 그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우리 형이고, 우리 누이며, 우리가 죽입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과 평화를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다.

기고

희망 스쿨 데이 '공연장 가는 날' -뮤지컬 '영웅'을 보고



박은아
광주서광중 교감

각했던 인물을 한 인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과 연결시켜 보고, 나는 이 사회와 국가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화 예술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안중근 의사의 하일빈 의거 11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광주 교육 가족의 날-희망 스쿨 데이 '공연장 가는 날' 행사로 우리 학교 역사 선생님, 역사 동아리 학생들과 뮤지컬 '영웅'을 관람하였다. 안 의사를 역사책으로 알고, 하일빈 의거에 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역사의 현장에 직접 서 보기도 하고, 블라디보스톡 크라스키노 단지 동맹비 앞에 서서 그 강인한 뜻을 느껴보기도 하고, 안 의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지만, 뮤지컬로 보는 감동은 새롭고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주역 장면과 열차 신(scene)과 같은 뛰어난 무대 연출과 수준 높은 배우들의 열연, 폐부를 찌르는 듯한 노래와 힘찬 춤 등을 보면서 느끼는 이 감동을 보다 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먼저 그 기회를 누리려 하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미안하였다.

뮤지컬 '영웅'은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민족영웅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러시아 연해주 자작나무 숲 단지 동맹부터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숨 막히는 전개를 보여준다. 2009년 초 연되었고,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웅은 '명성 황후'와 함께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최고의 명작이라 할 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 깊고 수준 높은 뮤지컬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기부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공연장 가는 날' 행사를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 덕분이다. 앞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 보다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공연을 보고 감동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중2 남학생들도 거의 세 시간이나 진행된 뮤지컬

공연에 완전히 몰입했고, 재미를 느꼈고, 얼굴이 상기되어서 공연장을 나섰다. 문화예술회관의 선선한 바람에 열기를 식히며 우리는 서로의 소감을 이야기했다. 안중근 의사의 영웅적인 삶 자체가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연기, 노래, 춤, 무대 연출 등 종합 예술로서의 뮤지컬에 큰 매력을 느꼈다는 학생, 주말에 선생님과 함께 공연장을 오게 된 것 자체가 즐겁다는 학생, 역사 수업에 뮤지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본다는 역사 선생님 등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수준에서 느꼈고, 생각하고, 나누었다.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가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중국 항일 유적지 답사가 있다고 귀뜸해 주고, 역사 선생님에게는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교사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는 해외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적극 추천하였다.

6·25와 5·18을 구분하지 못해 아빠에게 혼나고 한겨울에 집 밖으로 쫓겨난 적이 있다는 한 남학생에게, 오늘은 아빠에게 안중근 의사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리라고 말하며 발길을 돌렸다.

無等鼓

"저들이 최고의 팀들이다." 오는 6월2일 새벽 4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리그 데 샹피옹'(Ligue des Champions: 헨델의 '대관식 찬가'를 편곡한 UEFA 챔피언스리그의 주제곡)이 울려 퍼지고 나면 지상 최대의 축구 쇼가 펼쳐진다. 토트넘 대 리버풀이 맞붙는 결승전이다. 올해 '별들의 전쟁'은 잉글랜드·스페인·독일·이탈리아 등 각 리그 챔피언들이 모두 겨루는 '축구의 신' 메시와 호날두 그 자체로 무적 설레는 일이다.

챔스 결승전은 해마다 열리지만 무대를 아무나 났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선수 중에는 박지성이 유일하다. 그는 2008년 결승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돼 정상 차림으로 우승컵을 들어야 했고, 2011년에는 풀타임으로 출전해 열심히 뛰었으나 끝내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래서 손흥민의 각오는 남다르다. "챔스 결승은 모두가 꿈이다. 지성이 형이 결승에서 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는 뛰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왔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응원 하나하나에 정말 감사하고 있다. 내가 항상 100%의 기량을 발휘하려는 이유다. 새벽에 경기를 보고 있는 팬들에 보답해야 한다.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큰 귀를 닦았다고 해서 '빅 이어'라는 애칭을 가진 챔스 우승 트로피는 위상과 규모 면에서 FIFA 월드컵에 버금간다 할 수 있다. 손흥민은 처음으로 그 우승

도 짐을 썼다. 한국의 팬들에게 너무 늦거나 혹은 너무 빠른 시간. 그럼에도 이 꿈의 무대에 손흥민이 출전한다는 것은

꿈의 무대

이 부상에서 돌아와 손흥민이 벤치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2008년 박지성을 결승전에서 제외한 것은 가장 힘든 결정이었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다. 포체티노 감독이 '퍼거슨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결승전은 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경기다. 손흥민이 빅이어를 들고 태극기 세리머니를 펼치는 장면을 기대해 본다.

/유재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